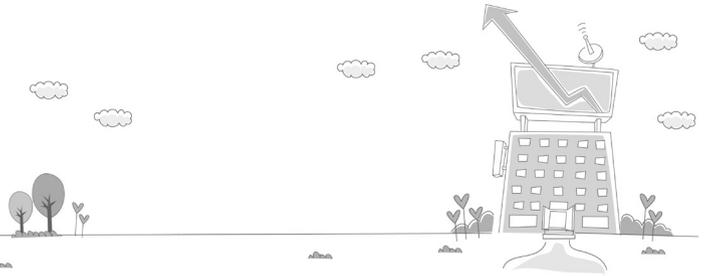


# 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날 대비 도축장,  
집유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9일까지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상황,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덧붙여,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년 7.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의무 적용 예정인 집유장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위한 작업장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실태도 같이 점검하여 HACCP 의무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귀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닭 기르기 책자 발간

봄 세대들이 은퇴와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작년 귀농인구는 4만 7000가구에 이르렀다. 귀농자들은 귀농 후 생계 수단으로 특히 닭 기르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닭이 다른 축종에 비해 투자기간이 짧고 닭고기와 계란 생산으로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양계농가들은 대량 생산 판매 양식이 아닌 소규모인 소량의 친환경 닭고기, 유정란 생산 판매로 고소득을 올려 제2의 인생 성공을 맞이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 양계인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닭 기르기 책자를 발간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닭 기르기' 책자는 처음 양계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닭 선택에서부터 사육시설 모델, 사양관리법, 질병관리 등 초보 양계인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성공한 양계농가 사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농가들의 양계업 경영이나 성공 비결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른 양계 책자들은 육계나 산란계를 활용한 전업·산업적인 부분에 맞춰져 발간됐으나, 이 책자는 귀농을 선택하고 양계를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e-Book으로 볼 수 있으며, 귀농농가 희망 신청자에 한해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사용  
‘양념오리주물럭’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가공업

체 ‘(주)누리푸드’(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유통기한 ‘13.9.13 및 ‘13.12.25’)가 사용되고,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유통기한 ‘13.10.26 및 ‘13.12.9’)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유통기한	생산량 (kg)	판매량 (kg)	압류량 (kg)
양념오리주물럭 (양념육)	(주)누리푸드	서울시 송파구	‘14.09.24	176	176	-
			‘14.10.16	71.2	71.2	-
			‘14.11.01	120	120	-
			‘14.12.06	120	120	-
			‘14.12.25	124.8	99.2	25.6
			‘14.12.30	117.6	14.8	102.8
계			729.6	601.2	128.4	
양념닭갈비 (양념육)	(주)누리푸드	서울시 송파구	‘14.10.17	134.4	116	18.4
			‘14.10.30	73.6	73.6	-
			‘14.11.04	73.6	73.6	-
			‘14.12.27	35.2	28	7.2
계			316.8	291.2	25.6	
매운돼지갈비찜 (양념육)	(주)누리푸드	서울시 송파구	‘14.12.26	63.2	11.2	52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국내 제1호 HACCP체인  
판매장 탄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작년 12월 24일(화) 대관령

한우타운(강원도 평창 소재)에서 ‘대관령한우 HACCP체인 시범사업 현장 행사’를 개최하였다. 기준원은 올해를 HACCP체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대관령한우를 비롯한 6개 브랜드경영체와 HACCP체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이중 올해 1월에 가장 먼저 업무협약을 맺은 평창영월정선축협(대관령한우)이 HACCP체인



구축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 HACCP체인 구축 판매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로써 대관령한우는 농장 → 도축 → 가공 → 운반 및 보관 →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HACCP 지정받은 축산물만 공급하는 최초의 HACCP체인 구축 브랜드가 되었다. 이와 관련 기준원은 1월 31일부터 안전관리통합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평창영월정선축협을 포함한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HACCP 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원은 안전관리통합인증 평가기준을 HACCP체인 브랜드경영체에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안전관리통합인증제의 효율적 정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HACCP 등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12월 30일(월) 11:0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과 기획재정부 협업과제인 「축산물거래 증명 일원화를 통한 유통투명성 제고」의 협력적 추진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축산물거래증명일원화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의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한 장의 서류로 발급함으로써 거래내역을 증명해주는 서비스)

양 기관장은 각 기관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통한 신뢰 구축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의견을 함께하였다.

허영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정부3.0”이라는 국정 패러다임에서 공공기관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업의 정신을 통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조규담 원장도 최근 어려운 축산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양 기관의 협약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김재수 사장, 美 찰스 랭글 의원  
감사패 받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김재수 사장은 최근 22선(選)의 찰스 랭글(Charles Rangel) 미국 연방하원의원으로부터 농업발전과 국제협상, 한미 교역증진과 외교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찰스 랭글 의원이 특별히 2013년 12월 20일을 ‘김재수의 날’로 지정해 수여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찰스

랭글 의원이 우리나라 공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것은 외교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최초다. 김재수 aT 사장은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거쳐 aT 사장으로 재직하며 농업분야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재직 중에는 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기구(OECD)와 주미대사관 농무관을 지내며 한미 교역증진 및 외교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주미 대사관 농무관 재임 중(2003~2007) 한미 FTA 협상, 주요 검역검사 현안 타결 등을 지원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찰스 랭글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직접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던 정치원로다. 20세인 1950년에 한국 전쟁에 참가해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하원 세입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경험한 22선 의원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찰스 랭글 의원에게서 감사패를 받아 더욱 뜻깊고 소중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의 수출증대와 한식세계화 등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 고병원성 시 발생농장 오리, 닭 등 엄격한 이동 제한

농협중앙회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방지와 농협 계통 사업장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1월



19일(일) 실시하고,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전국 318개의 AI 방역상황실을 통해 전 계통조직에 AI 발생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지침 및 정부의 조치사항을 시달하였다. 이와 함께 방역인력 및 생석회 640포, 소독약 500병, 방역복 1천벌 등을 전북 고창 지역에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 400개 농협 공동방제단과 전국 9개 권역에 비축된 생석회 12천포와 소독약 6,140병, 방역복 8,640벌에 대해 긴급 점검토록 조치하였다.

향후에도 농협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AI대책 T/F에 참여하여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상황진전에 따라 AI 방역대책상황실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시·군 방역담당 기관의 방역활동(방역소독, 살처분 인력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우 농협 중앙회축산경제대표는 “상시 예찰과 철저한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계란, 닭, 오리, 종란, 식용란 등은 엄격히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되므로 유통이 안되나, 만에 하나 AI바이러스가 오염되었어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됨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